

저자 (Authors)	전영권
출처 (Source)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 2014.2, 1-4(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지역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94091
APA Style	전영권 (2014). 순정공수로부인 행차에 관한 지리학적 소고.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1-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7 10:2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순정공·수로부인 행차에 관한 지리학적 소고

전영권(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1. 서론

본 연구는 『삼국유사』 기이편 수로부인에 나오는 헌화가의 배경설화 내용을 토대로 노인이 수로부인에게 꽃을 바친, 즉 헌화의 장소와 해가와 관련한 장소 고증을 지리학적 관점에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1) 헌화가 배경 설화

성덕왕 때에 순정공이 강릉태수(지금의 명주)로 부임하러 갈 때,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곁에는 바위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쳐서 바다를 굽어보고 있는데, 높이는 천 길이나 되고 그 위에는 철쭉꽃이 만개하였다. 공의 부인 수로는 이것을 보고 따르던 이들에게 청했다. “누가 저 꽃을 꺾어다 주겠소?” 따르던 이들은 대답했다. “그곳은 사람의 발자취가 이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고는 모두 안 되겠다 했다. 그때, 일행의 곁으로 한 늙은이가 암소를 몰고 지나가다가 부인의 말을 듣고 그 꽃을 꺾어 와서는 또한 가사를 지어 바쳤다. 그 늙은이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또 이들을 더 가니 임해정이 있었다.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바다의 용이 갑자기 부인을 끌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공은 비틀거리며 땅에 주저앉았으나 아무런 계책이 없었다. 또 한 노인이 말했다. “옛사람 말에 못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 쇠 같은 물건도 녹인다 했으니 바다 속의 짐승이 어찌 못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경내의 백성을 모아야 합니다.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은 그 말대로 따라 하였더니 용이 부인을 받들고 바다에서 나와 공에게 바쳤다. 공이 부인에게 바다 속의 일을 물으니, 부인이 대답했다. “일곱 가지 보물로 장식한 궁전에 음식은 달고 향기로우며 인간의 음식은 아닙니다.” 또 부인의 옷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풍겼는데, 세간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수로부인은 용모가 세상에 견줄 이가 없었으므로 매양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면 번번이 신물들에게 붙들리곤 하였던 것이다.

2) 헌화가

자춧빛 바위 가에, 잡은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신다면,
꽃을 꺾어 비치오리다.

3) 해가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 놓아라. 사람의 부녀자를 빼앗아간 죄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네 만약 거슬러 내 놓지 않으면,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으리.

2. 장소 추정

1) 자료 발굴

- 신라 33대 성덕왕(재위 기간 : 702~737년) 당시 순정공이 수로부인과 함께 경주에서 강릉 태수 부임을 위해 강릉으로 행차.
- 일행은 점심 먹으러 해안가로 갔으며, 해안가 높은 바위 절벽에 철쭉꽃이 만개.
- 행차에 동원된 수행원은 가파른 바위 절벽에 피어 있는 철쭉꽃을 꺾으러 가는 것은 불가

하다고 말함. 그 때 근처에서 암소를 몰고 지나가던 노인이 이 말을 듣고 노인 자신이 꺾어주겠다고 함. 그리고 철쭉꽃을 꺾어주면서 헌화가를 바침.

- 다시 이틀을 간 다음 점심 무렵, 바닷가 근처 정자에 일행이 점심을 먹기 위해 머무르게 됨. 그 때, 수로부인의 아름다운 용모에 반한 해룡이 나와 수로부인을 납치하여 바다 속으로 사라짐.

- 순정공이 당황해 있을 때,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경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함. 이때 경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른 노래가 해가사임. 그러자 용이 수로부인을 모시고 바다에서 나옴.

- 용궁을 다녀온 수로부인이 용궁 세상에 대해 말하기를 칠보궁전이 있었고, 맛있고 향기로운 깨끗한 음식을 먹었는데, 인간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함. 또한 수로부인 옷에서는 인간세상에서 결코 맡아보지 못했던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고 함.

- 인물이 출중했던 수로부인은 항상 깊은 산이나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신물(神物)에게 붙잡혀 갔다고 함.

2) 자료 분석

- 경주에서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순정공의 행로는 약300km에 달함.

- 점심을 먹었던 바닷가 주변 지형특성은 높은 단애이며, 바다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형태임.

- 험준한 단애 위로는 철쭉이 만개한 상태이고, 점심 무렵 노인이 암소를 몰고 가고 있었다는 것은 인근에 농토가 존재함. 즉, 철쭉꽃이 만개하는 5~6월 모내기를 하다 잠시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이었을 것으로 판단. 또한 5~6월은 낮의 길이가 비교적 길어 오전 7시경부터 오후 7시 무렵까지는 걸을 수 있어 적어도 하루에 8~10시간 정도는 걸었을 것으로 판단.

- 강릉태수 부임 행차에 동원된 인원은 대충 10명~15명으로 추정. 교통수단은 순정공과 수로부인의 경우 마차, 가마, 말 등을 이용했을 것이며 수행원들은 보행이라 가정할 경우, 식량·취사 담당, 호위 담당, 수로부인 시녀 등 약 15명 내외로 구성된 행차로 판단. 특히 원거리인 관계로 근거리 행차에 비해 인원이 다소 많았을 것으로 추정.

- 점심을 먹고 이틀 뒤 바닷가 정자에서 다시 점심을 먹게 되었고, 이곳이 바로 경내 백성들이 모두 모여 해가(海歌)를 지어 불렀던 곳. 경내라는 의미는 신라의 9주 5소경 중 하나인 하서주(중심도시 : 명주, 지금의 강릉)를 의미.

- 수로부인은 절세미인이어서 늘 깊은 산과 큰 못을 지날 때 마다 귀신에게 붙잡혀 갔다는 기록에서 판단해 볼 때, 경주에서 부임지 강릉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 또한 건너야 할 크고 작은 강만 해도 약 30개에 달해 부임지에 제때 도착하기 위해서는 일행 모두가 태만하지 않고 부지런히 이동했을 것으로 판단.

3) 내용 전개

성덕왕 시절 통일신라의 주교통로는 왕도인 경주를 중심으로 북해통(北海通)·염지통(鹽池通)·동해통(東海通)·해남통(海南通)·북요통(北嶠通) 등 오통(五通)이 주된 교통로 알려져 있다. 또한 건문역(乾門驛)·곤문역(坤門驛)·감문역(坎門驛)·간문역(艮門驛)·태문역(兌門驛)이라고 하는 5문역(門驛)이 있었다. 출발역의 위치는 역의 명칭에서 추정할 수 있다. 간문역의 간(艮)은 북동방향을 의미하므로 북동 방향으로 가는 교통로의 주된 출입역이다¹⁾. 즉, 간문역은 북해통의 출발지인 셈이다. 따라서 순정공과 수로부인이 행차했던 경주-강릉 간은 북해통의 노선과 일

1) 신라의 오문역은 북서향의 건(乾), 남서향의 곤(坤), 북향의 감(坎), 북동향의 간(艮), 서향의 태(兌) 등 방향을 나타내는 명칭이 역명에 있어 오통과의 연계성을 가진다.

치한다. 그렇다면 북해통의 경로는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해통은 다음과 같은 경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²⁾.

경주-안강(형산강을 따라 이어지는 노선)-포항시 흥해읍-포항시 청하면 고현리-영덕군 영덕읍-영해읍-울진군 울진읍-삼척시 원덕면-삼척시-강릉시

즉, 신라는 오통이라는 기본 교통 체계에 5통 간을 연결해주는 지선이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유적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는 데, 이러한 사실은 북해통의 주 통로가 동해안의 해안선을 따라 발달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경주를 출발한 순정공과 수로부인 행차의 강릉 부임지까지의 거리는 약 300km로 낮 시간 이 비교적 긴 5~6월이라 하루에 30 여 km 이상의 거리를 행차했을 것으로 판단된다³⁾.

경주를 출발해 강릉으로 떠난 행차는 경주를 출발한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영덕의 해안가에 당도하게 된다⁴⁾. 본 해안가는 현화가의 배경지로 추정되는 곳으로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지정천 골곡포(骨谷浦) 근방 암석단에 지 일대이다. 본 암석단에 뒤편으로 옛길이 있었다고 전해온다. 험준한 암석단에 위로는 철쭉꽃이 만개하였고 바다를 병풍처럼 둘러싸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킬 정도였을 것이다. 경주를 출발한 지 이틀 만에 처음 보는 시원한 바다여서 느끼는 감회도 컸을 것이다. 일대에서 이만한 경관을 보이는 곳은 여기뿐이다. 또한 현화가 배경설화에서 표현한 지형적 특성 또한 상당히 부합하는 곳이다.



그림 1. 현화가 배경지로 판단되는 골곡포 부근 단애

여기서 이틀을 더 간 바닷가에 위치한 정자 이른바 ‘임해정’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쉬기로 한다. 그러나 임해정이 위치하는 장소는 바닷가에 인접한 곳이다. 그렇다면 현화가 배경지로 판단되는 골곡포에서 이틀거리인 약 60km 내외의 거리에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골곡포에서 약 60km 내외의 거리를 보이는 곳 중 일대에서

2) 북해통은 오늘날 동해안을 달리는 7번 국도와 유사한 노선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노선은 지형적으로 교통로 발달에 유리한 지형적 특성을 보인다..

3) 고려 말 우왕 때인, 1388년 음력 4월 서경에서 약 300km 떨어진 위화도까지 이성계·조민수가 이끄는 원정군이 19일 만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성계와 조민수는 정변을 모의하여 음력 5월 회군을 결행하고 위화도를 떠난 지 9일 만에 약 500km에 달하는 개경 부근까지 진군하게 된다. 요동정벌을 원치 않았던 이성계와 조민수는 실제 300km에 달하는 거리를 하루에 평균 16km 정도밖에 행군하지 않은 반면, 위화도 회군 결정 후 우왕과 최영을 치기 위해 행군 속도를 높인 이성계·조민수 군대는 하루 평균 행군속도가 50km에 달한다. 여기서 연구자는 순정공과 수로부인 행차 속도를 상기 두 가지의 경우를 평균한 하루 이동속도 약 30km로 추정하였다.

4) 경주 반월성에서 강릉까지 직선상의 개략 거리 :

반월성(0)-현화가 배경지(57km)-월송정(122km)-망양정(137km)-울진(153km)-증산해수욕장 와우산(220km)-동해시(230km)-강릉시(275km)

최고의 경관을 보이는 곳은 관동팔경 최남단에 해당하는 월송정(越松亭)이다. 옛 군지의 기록에 신라 때 영랑(永郎)·술랑(述郎)·남석(南石)·안상(安祥) 등 네 화랑이 달밤에 솔밭에서 선유하였다는 정자로 신라시대에도 수려한 경관지로 정평이 나있었다. 월송정이 위치하는 곳은 주위보다 다소 높아 전망이 좋은 곳으로 비치리즈(beach ridge)에 해당한다. 절벽이 아니면서도 바닷가에 임해 있어 현화가 배경설화에서 언급된 지형적 특성과 잘 부합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남정면 골곡포 일대의 화산암류로 이루어진 암석단애지 일대는 현화가의 배경지고, 그 곳으로부터 약 60km 이상 떨어져 위치하는 월송정은 해가 배경지로 판단된다.

3. 현화가 배경지로 거론되는 또 다른 장소

- 1) 강릉시 주장 :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옥계면 금진리 6km의 해안도로(강릉 현화로)
- 2) 삼척시 주장 : 삼척 와우산 기슭(현화와 해가 배경지)
- 3) 울진군 산포리, 울진읍 연지리~북면 고포리 일대
- 4) 울진군 북면 고포리(현화가 배경지)와 갈남리(해가 배경지)⁵⁾

4. 결론

현화가 배경 설화를 토대로 노인이 수로부인에게 꽃을 바친, 즉 현화의 장소와 해가장소에 관한 장소 추정을 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현화가 배경지는 영덕군 남정면 골곡포 일대에 위치하는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암석단애지 일대로 판단된다.

둘째, 해가 배경지는 현화가 배경지로 판단되는 암석단애지로부터 이틀거리(약 60 여km)에 위치하는 울진의 월송정 일대로 판단된다.

셋째, 일부에서 주장하는 현화와 해가 배경지는 설득력이 약하다.

5. 참고문헌

서영일, 1999, 신라 오통고(新羅 五通考), 백산학보(白山學報), 52, 백산학회.

심현용, 2008, 고고자료로 본 신라의 강릉지역 진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삼국사기』

『삼국유사』

김대갑, 절세미녀 수로부인의 유혹, 강릉 현화로, 국제신문, 2007/01/16.

옛길기행 (39), 영덕 7번국도 옛길, 매일신문, 2011/09/21.

김진문, 현화와 울진(<http://uljin7.com/zboard/zboard.php?id=travel&no=33>)

디지털강릉문화대전(<http://gangneung.grandculture.net/>)

디지털울진문화대전(<http://uljin.grandculture.net/>)

울진21(<http://www.uljin21.com>)

5) 강원도 향토사학자 김수문(전 거진중학교 교감)씨 주장